

Session 9 Jesus' Ministry (Jn. 5; Mt. 12; Mk. 3; Lk. 6)

제 9 장 예수님의 사역 (요 5 장; 마 12 장; 막 3 장; 눅 6 장)

I. JESUS' SECOND VISIT TO JERUSALEM (JN. 5)

예수님의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 (요 5 장)

- A. Jesus returned to Jerusalem for a feast, often seen as His second Passover—April AD 28 (Jn. 5:1). There were three feasts that the Mosaic Law required Jewish males to attend: Passover, Pentecost, Tabernacles. John connected his narrative to the Jewish feasts in Jerusalem—Passover (2:13; 6:4), Tabernacles (7:2); Dedication (10:22); and Passover (12:1). This is the only feast that he did not identify. On other occasions, John identified the feast since the teaching that Jesus gave there was relevant to that feast (Jn. 2:13; 6:4; 7:2; 10:22; 12:1). Jesus left Galilee, having just finished this first ministry tour of Galilee (Lk. 4:44).

예수님은 절기(명절)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으며, 이는 종종 그분이 2 번째로 유월절에 가신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AD 28 년 4 월이었다 (요 5:1). 모세의 율법에서 유대인 남성들이 지키도록 요구하는 절기는 3 개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었다. 요한복음은 스토리 라인을 예루살렘의 유대인 절기인 유월절 (2:13; 6:4), 장막절 (7:2), 수전절 (10:22), 그리고 유월절과 연결시킨다 (12:1). 이 구절은 예수님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명확히 말하지 않는 유일한 유일한 부분이다. 다른 곳에서는 요한복음은 어떤 절기인지 말해주고 있고, 예수님은 이 절기에 맞게 가르치신다 (요 2:13; 6:4; 7:2; 10:22; 12:1).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며 이곳에서의 첫 번째 사역 여정을 마치신다 (눅 4:44).

¹After this there was a feast of the Jews,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Jn. 5:1)

¹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 5:1)

- B. Jesus healed a man on the Sabbath in Jerusalem (Jn. 5:2-9). This caused great hostility among the Pharisees. John intentionally developed this hostility in John 5-10. Then Jesus used their opposition to Him healing on the Sabbath to explain His relationship to the Father (Jn. 5:19-47).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 한 남자를 고치셨으며 (요 5:2-9), 이는 바리새인 가운데 엄청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 요한복음은 이 적대감의 증가를 5-10 장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에 치유하신 것에 대한 그들의 반감을 이용해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신다 (요 5:19-57).

- C. Jesus healed an infirm man at the Pool of Bethesda on the Sabbath (Jn. 5:2-9). On various occasions, when an angel stirred up the waters, the first person to enter this pool would be healed. Isaiah prophesied that the Messiah would heal the lame (Isa. 35:6).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요 5:2-9). 많은 경우, 천사들이 와서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에 여기에 처음 들어간 사람이 치유되었다.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오셔서 저는 자를 고치실 것을 예언했다 (사 35:6).

²Now there is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a pool, which is called in Hebrew, Bethesda...

³In these lay a great multitude of sick people, blind, lame, paralyzed, waiting for the moving of the water.

⁴For an angel...stirred up the water; then whoever stepped in first,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made well...⁵A certain man was there who had an infirmity thirty-eight years. ⁶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made well?" ⁷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man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⁸Jesus said to him, "Rise, take up your bed

and walk.” ... ⁹And immediately the man was made well, took up his bed, and walked. And that day was the Sabbath. (Jn. 5:2-9)

²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 ³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낮게 뒹이러라] ⁵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⁶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 네가 낚고자 하느냐 ⁷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 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⁹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요 5:2-9)

1. **Do you want to be made well?:** This question was an important part of his healing. One of the first steps in receiving healing and living in wholeness is a sincere desire for it. Some people find their identity in their sickness—seeking sympathy or providing an excuse to not attempt something that they might fail at. If they are sick, they have an excuse not to attempt things.

네가 낚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분의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치유를 받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 치유를 향한 진실한 갈망이다. 어떤 사람들은 병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어서, 공황을 바라며 실패할만한 일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를 삼기도 한다. 질병이 있을 때, 그들은 뭔가를 시도하지 않을 핑계를 가진다.

2. **Take up your bed:** Jesus told him to carry his bed, knowing it was the Sabbath (5:9). By doing this, the man ignited a controversy.

자리를 들고: 예수님은 그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날이 안식일임을 알고 계셨다 (5:9).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논란이 일어났다.

3. **Sabbath:** Breaking the Sabbath was a capital offense; it could result in being stoned to death.

안식일: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 a. God's intention behind the fourth commandment was that people not work on the Sabbath (Ex. 20:9). It was associated with earning a living from one's employment.

10 계명의 4 번째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출 20:9). 이는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었다.

- b. This man did not break the intent of the law, but violated the rabbinic interpretation of it. Rabbinic tradition identified 39 categories of work—including carrying things.

이 사람은 율법의 의도 자체를 범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유대적인 해석을 어겼다. 유대 전통은 일을 39 가지 범주로 나누며, 여기에는 뭔가를 들고 옮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 D. The religious leaders sought to kill Jesus (Jn. 5:10-18). Jesus used this occasion to describe His relationship to His Father (5:17-30). These leaders were not moved by the healing, but only by the fact that their religious code was not being upheld.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요 5:10-18). 예수님은 이를 이용해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셨다 (5:17-30). 이 지도자들은 치유가 일어난 것에는 감동을 받지도 않았으며, 종교적인 규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

¹⁴Afterward Jesus found him and said, "...Sin no more, lest a worse thing come upon you"...

¹⁶The Jews...sought to kill Him, because He had done these things on the Sabbath. ¹⁷But Jesus answered them, "My Father has been working until now, and I have been working." ¹⁸Therefore the Jews sought all the more to kill Him, because... [He] also said that God was His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Jn. 5:10-18)

... ¹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 ¹⁶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한글 KJV: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¹⁷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¹⁸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 5:10-18)

1. Jesus warned the man not to see his healing as an opportunity to continue in sin (5:14). This man's sickness was related to his sin. Specific sins if persisted in can affect our circumstances (Acts 5:1-11; 1 Cor. 11:30; 1 Jn. 5:16). This does not mean that everyone who sins will be struck with sickness. John clarified that some sickness isn't the result of someone's sin (9:3).

예수님은 이 사람의 치유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님을 경고하셨다 (5:14). 이 사람의 병은 죄와 연관이 있었다. 우리가 특정한 죄들을 지속하게 되면, 이는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 5:1-11; 고전 11:30; 요일 5:16). 이는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않는다. 요한은 어떤 질병은 죄의 결과가 아님을 명확히 말했다 (9:3).

2. Many rabbis taught that God works on the Sabbath to uphold creation. Jesus understood that God was constantly at work. God's work includes healing and restoring lives, not just maintaining the material order of the universe. Jesus' point was that since God works on the Sabbath it validated Jesus working on the Sabbath with the Father.

많은 랍비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에 피조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신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주의 물질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치유나 삶을 회복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시기에,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것이었다.

3. God did not cease His work on the Sabbath, and neither did Jesus. Jesus worked with God. Jesus claimed that His relationship to the law of Moses was the same as God's, not the same as fallen man's. He spoke of His Father, emphasizing their unique Father-Son relationship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으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세 율법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이 율법에 대해 가지는 관계와 같으며, 타락한 인간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셨다.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

- E. Jesus clarified His relationship to God as a Son fully dependent and submitted to Him (Jn. 5:19-21). Jesus does nothing of Himself or on His own initiative. He taught that the Father was greater than the Son (Jn. 14:28). The Father's love for Jesus is manifested in His continuous revealing to the Son all that He does (5:20). Jesus doing whatever the Father does is seen in Jesus having authority to give life to the dead (5:21) and to be the judge who evaluates everyone's life on the last day (5:22).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아들로써 자신을 완전히 드리고 의지하는 관계임을 명확히 밝히신다 (요 5:19-21).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아버지가 아들보다 크신 분임을 가르치신다 (요 14:28).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분이 아들에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것에서 드러난다 (5:20).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이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권세를 가지는 것과 (5:21) 마지막 날에 모든 이들의 삶을 평가하는 심판자가 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다 (5:22).

¹⁹Then Jesus...said to them, "...the Son can do nothing of Himself, but what He sees the Father do; for whatever He does, the Son also does in like manner. ²⁰For the Father loves the Son, and shows Him all things that He Himself does...²¹For as the Father raises the dead...even so the Son gives life to whom He will. ²²For the Father...has committed all judgment to the Son,²³ that all should honor the Son..." (Jn. 5:19-23)

¹⁹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²⁰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 ²¹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²² 아버지께서 ...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²³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 (요 5:19-23)

- F. Jesus will call forth the dead (Jn. 5:24-29). Receiving spiritual life as the new birth now and resurrected physical life at His coming are aspects of His work in the "dead hearing His voice."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부르실 것이다 (요 5:24-29).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지금 거듭남으로 영적인 생명을 받는 부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체의 몸을 받는 부분으로 나뉘어 볼 수 있다.

²⁵Most assuredly...the hour is coming, and now is,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²⁸for the hour is coming in which all who are in the graves will hear His voice ²⁹and come forth—those who have done good, to the resurrection of life, and those who have done evil, to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Jn. 5:25-29)

²⁵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 ²⁸ ...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²⁹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 5:25-29)

- G. Jesus returned to Galilee by the sea (Jn. 6:1). This probably occurred in May AD 28.

예수님은 바다를 통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요 6:1). 이 일은 아마 AD 28년 5월의 일이었을 것이다.

¹After these things Jesus went over the Sea of Galilee, which is the Sea of Tiberias. (Jn. 6:1)

¹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 6:1)

II. SABBATH CONTROVERSIES IN GALILEE (MT. 12:1-8; MK. 2:23-28; LK. 6:1-5)

갈릴리에서의 안식일 논쟁 (마 12:1-8; 막 2:23-28; 눅 6:1-5)

- A. In Capernaum, Jesus gave a parable emphasizing the need to put new wine into new wineskins. This parable was recorded immediately before these next Sabbath conflicts (Mk. 2:18-22; Lk. 5:33-39). The disagreement between Jesus and the Pharisees concerning the way of righteousness and godly lifestyles was related to the principles seen in the parable of old and new wineskins.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 비유는 바로 다음 안식일 논쟁 직전에 기록되었다 (막 2:18-22; 눅 5:33-39).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의 의와 경건한 삶에 대한 의견 충돌은 새 가죽부대와 낡은 가죽부대의 비유에 있었던 원리와 연관이 있다.

- B. The opposition against Jesus began when He forgave sins (Mt. 9:1-8) and escalated when He ate with sinners (Mt. 9:9-13). Now it exploded because Jesus did not honor their legalistic traditions.

예수님에 대한 적대는 그분이 죄를 사하셨을 때에 시작되었으며 (마 9:1-8), 그분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했을 때에 확대되었다 (마 9:9-13). 이제 이는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주의 전통을 지키지 않음으로 폭발한다.

- C. Mark's gospel reported events as they occurred chronologically whereas, Matthew reports them according to themes. Matthew put miracles and teachings together without chronology as a priority.

마가복음은 사건들이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으며, 마태복음은 주제들을 따라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기적과 가르침들을 시간 순서대로 말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

- D. The disciples picked grain on the Sabbath, causing a strong Sabbath controversy in Galilee like that which had just happened in Jerusalem (Mt. 12:1-8; Mk. 2:23-28; Lk. 6:1-5). Jesus had three Sabbath confrontations in a row—one in Jerusalem and two in Galilee (Mt 12:1-8 and Mt. 12:9- 14).

The ripening of the grain suggests May, so just a few weeks after Passover in Jerusalem (Jn. 5:1).

제자들은 안식일에 곡식을 잘라먹었고, 이로 인해 갈릴리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논쟁만큼 강한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다 (마 12:1-8; 막 2:23-28; 눅 6:1-5). 예수님은 안식일에 세 번이나 연달아 충돌했고, 한번은 예루살렘에서 두 번은 갈릴리에서였다 (마 12:1-8; 마 12:9- 14). 곡식이 익었다는 것은 5 월임을 말해주며,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몇 주 안된 시간이었다 (요 5:1).

¹At that time Jesus went through the grainfields on the Sabbath. And His disciples were hungry, and began to pluck heads of grain and to eat. ²And when the Pharisees saw it, they said to Him, "Look, Your disciples are doing what is not lawful to do on the Sabbath!" ³But He said to them, "Have you not read what David did when he was hungry...⁴how he entered the house of God and ate the showbread which was not lawful for him to eat, nor for those who were with him, but only for the priests?...⁶I say to you that in this place there is One greater than the temple." (Mt. 12:1-6)

¹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²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 ⁶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 12:1-6)

1. The law allowed people to glean a few ears of grain as they passed by a field (Deut. 23:25).

율법은 사람들이 들판을 지나며 이삭들을 조금씩 따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신 23:25).

2. Jesus appealed to a situation in David's life in the Scripture (1 Sam. 21:1-9). The house of God was the tabernacle that stood at Nob. David and his men ate consecrated bread that only the priests had a right to eat. Scripture did not condemn David for eating the consecrated bread because he was the Lord's anointed king who was fleeing from an evil state that sanctioned the military to kill him. God permitted David to violate the ceremonial law in the face of a life and death issue. Jesus appealed to a time in David's life when Israel's evil leadership was rejecting him. The Son of David was now experiencing similar rejection.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상황을 말씀하신다 (삼상 21:1-9). 여기서 하나님의 전은 놉에 있던 장막을 말한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던 진설병을 먹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정죄하지 않는데, 이는 악한 정부가 군대를 시켜 그를 죽이게 해서 달아나고 있던 주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이 생명의 기로에 선 순간에서 의식법을 어기는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은 다윗의 삶에서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가 그를 거절하던 때를 두고 말씀하시며, 여기서는 다윗의 아들이신 그분이 동일한 일을 겪고 계신다.

3. The issue to Jesus was not mostly about understanding the application of Sabbath laws. Jesus made a shocking claim that *Someone greater than the temple is present*—that the Son of Man is with His people as their Messianic King and Lord. The temple was important because it was the place of God's manifest presence (12:6). The presence of God in the person of Jesus was vastly superior. This is a most remarkable statement.

예수님에 대한 문제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라고 말씀하셨으며, 이는 인자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메시아와 왕과 주로서 함께 계심을 말하고 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12:6).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훨씬 큰 것이었다. 이는 가장 주목할만한 말씀이다.

- E. Several months earlier Jesus told the authorities to go and learn about mercy (Mt. 9:13). True spirituality is to result in compassion for people with mercy along with zeal for holiness.

이보다 몇 달 전에, 예수님은 권세자들에게 가서 긍휼에 대해 배우라고 말씀하셨다 (마 9:13). 참된 영성은 거룩에 대한 열심을 소유하면서도 사람들을 긍휼을 가지고 보살피는 것이다.

⁷*But if you had know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you would not have condemned the guiltless.* ⁸*For the Son of Man is Lord even of the Sabbath.* (Mt. 12:7-8)

⁷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⁸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 12:7-8)

¹³*But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Mt. 9:13)

¹³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 (마 9:13)

- F. Mark put two significant statements together (Mk. 2:23-28)—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Jesus was the Lord of the Sabbath. As Messiah, He is the authoritative interpreter of the Law. God's laws are designed to bless and not hurt people. The Pharisees' rigid system condemned and hurt people. Pharisees "condemned people"—this had serious social, legal, and economic implications.

마가복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함께 말하고 있다 (막 2:23-28).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부분이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율법의 해석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들을 축복하도록 디자인된 것이지, 상하게 하도록 디자인된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견고한 시스템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치게 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정죄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적, 법적, 경제적 영향을 끼쳤다.

²⁷ *And He said to them,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and not man for the Sabbath.”* ²⁸ *Therefore the Son of Man is also Lord of the Sabbath.”* (Mk. 2:23-28)
... ²⁷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²⁸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막 2:23-28)

1. As the Son of Man (v. 5), Jesus was vastly superior to David, and thus He could set aside a Pharisaic tradition for the welfare of His followers. We see Jesus' authority in a new way.

인자이신 예수님은 (5 절) 다윗보다 큰 분이였으며,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무시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권위를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다.

2. Jesus claimed as the Son of Man to be the Lord of the Sabbath. Thus, all the commands related to the Sabbath are under Jesus' authority.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임을 주장하셨다. 따라서 안식일과 연관된 모든 명령들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III. JESUS HEALED A MAN WITH A WITHERED HAND ON THE SABBATH (MT. 12:9-14)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마 12:9-14)

- A. Jesus used the Sabbath controversies to emphasize His message that the human need is more important than obedience to ceremonial laws and to clarify who has authority to interpret the law.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사용하셔서 인간의 필요가 예식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셨으며, 누가 율법을 해석할 권세가 더 있는지를 명확히 하셨다.

- B. Jesus healed a man on the Sabbath in a synagogue in Galilee (Mt. 12:9-14; Mk. 3:1-6; Lk. 6:6-11).

예수님은 안식일에 갈릴리 회당에서 한 사람을 고치셨다 (마 12:9-14; 막 3:1-6; 눅 6:6-11).

⁹ *Now when He had departed from there, He went into their synagogue.* ¹⁰ *And behold, there was a man who had a withered hand. They asked Him, saying, “Is it lawful to heal on the Sabbath?”—that they might accuse Him.* ¹¹ *Then He said to them, “What man is there among you who has one sheep, and if it falls into a pit on the Sabbath, will not lay hold of it and lift it out? ¹²Of how much more value then is a man than a sheep? Therefore it is lawful to do good on the Sabbath.”* ¹³ *Then He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And he stretched it out, and it was restored ... ¹⁴The Pharisees went out and plotted against Him, how they might destroy Him. (Mt. 12:9-14)*

⁹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¹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 ¹¹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렁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¹²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¹³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¹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마 12:9-14)

1. Rather than avoiding a conflict, Jesus intentionally provoked one to proclaim His message. Jesus offended the mind of these leaders to bring their evil heart intentions to the surface.
예수님은 충돌을 피하기보다,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의도적인 도발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그들의 악한 마음의 의도가 표면에 떠오르게 하셨다.
2. Jesus' view of the Sabbath was known, so His enemies watched for opportunity to accuse Him legally so to charge Him criminally in the courts.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은 이미 알려졌고, 따라서 대적들은 그분을 법정에서 유죄로 고발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3. They made a resolute decision to kill Jesus just as the leaders in Jerusalem had done earlier. The Pharisees were not interested in Jesus' argument, but in finding an excuse to kill Him.
그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주장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분을 죽일 구실을 찾는 것에 관심을 두었다.
4. Jesus justified healing a person on the Sabbath by appealing to a principle all agreed on—pulling an animal out of a pit on the Sabbath. “One” sheep points to a poor farmer. But if kindness can be shown to a sheep on the Sabbath, how much more to a human being!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것에 대해 모든 이들이 동의하는 원리,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구해내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정당화하신다. “양 한 마리”는 이 손 마른 사람을 가리킨다. 만일 안식일에 양을 향해 자비함을 베풀 수 있다면,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5. Mark highlighted Jesus' anger and grief at their hardness of heart (Mk. 3:5).
마가복음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한 예수님의 분노와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막 3:5).
⁵And when He had looked around at them with anger, being grieved by the hardness of their hearts, He said to the man, “Stretch out your hand.” (Mk. 3:5)
⁵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막 3:5)

IV. THE SERVANT OF THE LORD (MT. 12:15–21)

주의 종 (마 12:15-21)

- A. Jesus healed many people near the Sea of Galilee (Mt. 12:15-21; Mk. 3:7-12). Luke 6 does not record this episode in Jesus' ministry of His withdrawal from the hostility to avoid a premature arrest by the conspiring Jewish authorities before it was His time to go to the cross (Mt. 12:15-16).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 (마 12:15-21; 막 3:7-12). 누가복음 6 장은 예수님이 유대인 권세자들의 음모로 십자가의 때보다 이르게 체포되지 않도록, 적대하는 이들로부터 물러나신 이 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마 12:15-16).

¹⁵But when Jesus knew it, He withdrew from there. And great multitudes followed Him, and He healed them all...¹⁷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Isaiah... (Mt. 12:15-17)

¹⁵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¹⁶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¹⁷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마 12:15-17)

1. **Great multitude:** Jews and Gentiles gathered to Jesus from seven locations (Mk. 3:7-9).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일곱 곳으로부터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막 3:7-9).

⁷But Jesus withdrew with His disciples to the sea. And a great multitude from Galilee followed Him, and from Judea ⁸and Jerusalem and Idumea and beyond the Jordan; and those from Tyre and Sidon...⁹ So He told His disciples that a small boat should be kept ready for Him because of the multitude, lest they should crush Him. (Mk. 3:7-9)

⁷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⁸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⁹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막 3:7-9)

2. **Healed them all:** Jesus' nature and desire is to heal broken lives and bodies.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깨어진 삶과 육신을 고치길 갈망하신다

- B. Isaiah's prophesied of the Messiah coming in humility and even healing Gentiles (Isa. 42:1-4).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겸손함으로 오시며,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예언했다 (사 42:1-4).

¹⁷...that it might be fulfilled which was spoken by Isaiah the prophet, saying: ¹⁸“Behold! My Servant...My Beloved in whom My soul is well pleased...He will declare justice to the Gentiles. ¹⁹He will not quarrel nor cry out, nor will anyone hear His voice in the streets. ²⁰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smoking flax He will not quench, till He sends forth justice to victory; ²¹and in His name Gentiles will trust.” (Mt. 12:17-21)

¹⁷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¹⁸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KJV 흠정역: 공의]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¹⁹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²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²¹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 12:17-21)

1. Jesus did not come the first time in the way that most expected Him—as a triumphant king, who used power to transform governments and the social order. He came as a humble servant.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은 모두가 기대하고 있던, 권능으로 정부와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며 정복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분은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2. Jesus came as Messiah in a way that was much more humble and friendly to Gentiles than any expected. He responded to conflict with humility and healed broken hearts more than cities.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겸손하고 친근한 모습의 메시아로 오셨다. 그분은 충돌에 대해 겸손하게 반응하셨으며, 상한 마음을 고치셨다.

3. **My Beloved in whom My soul is pleased:** The Father spoke these words over Jesus at His baptism (Mt.3:17) and His transfiguration (Mt. 17:5), declaring His delight in Jesus.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마 3:17), 그리고 변화산에서 (마 17:5) 말씀하시며 예수님에 대한 기쁨을 선포하셨다.

A voice came from heaven, saying,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Mt. 3:17)
¹⁷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7)

4. **He will declare justice:** Justice is another word for victory. Jesus is committed to establishing justice until it triumphs over all the nations. Jesus did not release judgment on His enemies at His first coming as Isaiah prophesied (Isa. 42:1-4; 61:1-2a; Lk. 4:18-19).

그가 심판[공의]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공의, 심판은 승리의 또 다른 이름이다. 예수님은 공의가 온 열방에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를 세우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초림에서 대적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셨다 (사 42:1-4; 61:1-2a; 눅 4:18-19).

- a. Three uses of the word *judgment* in Scripture—to evaluate; to punish; and to deliver by making wrongs things right— thus, to deliver from sin, weakness, sickness, etc.

성경에서 심판이 사용되는 세 가지 예 – 평가하기 위해, 처벌하기 위해,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음으로 구원하심, 즉 죄와 연약함과 병 등으로부터 구원하심

- b. The judges in the Old Testament brought “deliverance” to God’s people.

구약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5. **He will not quarrel nor cry out:** Jesus did not lift His voice in the streets to stir up a political or military revolution against Rome nor to protest the injustices against Him by the scribes and Pharisees. This leadership style was very different from the popular expectation of how the Messiah would come. Israel expected Him to crush Roman opposition at that time.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예수님은 로마에 대항하여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그분을 대항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불의에 저항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 이런 리더십 스타일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행하시리라 기대하던 모습과는 매우 다른 것이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릴 것이라 기대했다.

¹⁹*He will not quarrel nor cry out, nor will anyone hear His voice in the streets. (Mt. 12:19)*

¹⁹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마 12:19)

- a. Isaiah prophesied that God’s Servant would establish justice without using military force or violence. Jesus refused to support revolutionary groups such as the Zealots who fought Rome.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 군사적인 힘이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공의를 세울 것을 예언했다. 예수님은 로마를 대항해 싸웠던 열심당과 같은, 혁명을 일으키길 원하는 그룹을 지지하지 않으셨다.

- b. At His first coming Jesus responded to mistreatment with great patience, humility, and entrusting the mistreatment against Him into God’s hands (1 Pet. 2:23).

예수님은 초림 때에 그분에 대한 불의한 대우들 앞에 인내와 겸손,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반응하셨다 (벧전 2:23).

- c. He did not quarrel with the Pharisees or any of His enemies, but withdrew from them.

그분은 바리새인이나, 그분을 대적하는 어떤 이들과도 싸우지 않으셨으며 그들로부터 물러나셨다.

- d. Jesus did rebuke them for their sinful leadership over the people (Mt. 12:25-45); however, Jesus did not argue to convince His enemies to receive His leadership.

예수님은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죄악된 리더십을 꾸짖으셨다 (마 12:25-45). 그러나 예수님은 대적들이 그분의 리더십을 받아들일도록 납득시키기 위해 논쟁하지 않았다.

- C. **Victory by compassion:** Isaiah prophesied that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smoking flax He will not quench, till He sends forth justice to victory.”

공홀로 승리하심: 이사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예언했다.

²⁰ **A bruised reed He will not break, and smoking flax [smoldering wick, NAS, NIV, ESV] He will not quench, till He sends forth justice to victory;²¹ and in His name Gentiles will trust.”**
(Mt. 12:20)

²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²¹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 12:20-21)**

1. **A battered reed:** This refers to areas of weakness in our life—those areas that are at the pointing of breaking repair. This describes weak and hurting people who can be easily damaged even by a touch as a battered reed will break if touched by the slightest pressure.

상한 갈대: 이는 우리 삶에 있는 연약한 부분을 말하며, 깨지기 직전의 상태에 있는 부분들을 말한다. 이는 상한 갈대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부러지는 것처럼,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상하는 연약하고 상한 사람들을 말한다.

2. **Smoldering wick:** This speaks of areas in our life that have not come to full brightness to the measure God ordained for us. A smoldering wick struggles to keep burning. It is flickering. The light is going out. The Lord declares that He will not let it go out, but will bring the fullness of His purpose in our life as we submit to Him leadership with faith and obedience.

꺼져가는 심지: 이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만큼 충만하게 차오르지 않은 부분들을 말한다. 꺼져가는 심지는 계속해서 타오르기 위해 애를 쓴다. 이는 깜빡거리며 곧 꺼질 것 같은 불이다. 주님은 이를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시며, 대신 우리가 그분의 리더십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할 때에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을 선포하신다.

3. **The Gentiles will trust in Him:** His miracles touched and transformed even Gentiles—this prophecy was to prepare the Jewish people for One who be “Savior of the world” (Jn. 4:42).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그분의 기적들은 이방인들조차도 변화시켰다. 이 예언은 유대인들을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실 분에 대해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요 4:42).

4. We see Jesus embracing the cross before wearing the crown. This is way that He called His people to live in the face of injustice and mistreatment— that is, to respond with humility, patience, looking to the Lord to vindicate us in His way and timing.

우리는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시기 전에 십자가를 받아들여심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분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불의와 불합리함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다. 즉, 겸손과 인내로 반응하며, 주님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에 우리의 옳음을 입증해주시길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